

세 단계 서평 쓰기

처음 글쓰기교실에서 상담을 받았던 때가 기억납니다. 한 핵심교양 수업에서 서평을 쓰라는 과제를 받고서는 '서평'이 무엇인지 감조차 오지 않아 막막한 심정으로 상담 선생님과 만났습니다. 이 두꺼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읽고나서 무언가 느낄 수는 있을지, 무얼 느꼈다고 해도 그 느낌을 써낼 수는 있을지, 온갖 걱정거리를 한 아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쓰기교실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후 한 달 만에 스스로 만족할 만큼의 서평을 써낼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서평을 제출할 때의 그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작 5장짜리 짧은 글이었지만 그저 막막하던 상태에서 간신히 결과물을 얻어냈기에 마치 無에서 有를 창조해낸 것과 같은 기분마저 들더군요.

그 과제 이후로도 지난 3년간 여러 종류의 글을 써왔지만 서평을 쓰는 건 아직도 가장 어렵고 고민스럽게 느껴집니다. 인문사회계에서 서평 과제는 각 수업마다 하나 이상은 주어지곤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예전 서평을 종종 들춰보면 역시 처음보다는 속도도 빨라지고 글의 질도 비교적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스스로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 제가 3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알게 된 지름길 혹은 매뉴얼을 제시함으로써 서평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서평을 쓰는 과정은 크게 책 읽기, 자료 읽기 그리고 글쓰기로 나뉩니다. 무조건 맞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 세 과정에서 하는 방법을 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은 2번 읽습니다. 첫 번째에는 책 전체 걸개를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읽습니다. 이때는 매우 편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그냥 즐거리를 감상하듯이 침대에 누워서-이러다 잠들기도 합니다만- 혹은 지하철에서 훑훑 넘기면서 말입니다. 이 때 차례를 미리 보는 건 필수인데 차례를 알아야만 가볍게 읽더라도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편하게 읽는 게 아니라 한 장이 끝날 때마다 차례를

김 지 은
서울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확인하고 그 장이 전체 책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정도는 파악하고자 노력합니다.

두 번째에는 첫 번째 읽었을 때 파악한 전체 구조 속에서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이 과정에서 세부 내용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됨으로써 여러 비평거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스킴은 생각이라도 간단하게 적어두면 의외로 좋은 주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메모는 따로 수첩이나 컴퓨터에 해두는 게 좋습니다. 책에 해두면 나중에 글쓰기에 들어갔을 때 해당 내용을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한꺼번에 모아 둔 메모는 나중에 글쓰기에 들어가서 '나만의 색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두 번째로 책을 읽은 후에는 두 종류의 자료를 활용하여 생각을 정리합니다. 또한 이렇게 여러 자료를 참고하면서 드는 생각은 앞서 책을 두 번째 읽으면서 해두었던 메모와 같은 곳에 메모해 둡니다.

첫 번째 자료는 책의 내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용합니다. 저자가 참고했던 자료는 책 뒷편에 대개 게재되어 있는데 혹시 없다면 출판사에 문의해보면 됩니다. 그래도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다면 저자가 썼던 다른 자료를 찾아보거나 저자의 이메일 주소로 질문을 보내면 대부분 친절하게 답해 줍니다.

책의 내용에 의문은 드는데 그 의문점을 구체화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저자의 생각과 배치되는 내용을 가진 자료를 참고합니다. 이때 자료의 질을 판별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학부 수준에서 자료의 질을 파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수님이나 조교님께 조언을 구해 양질의 자료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이 때 박사 학위 논문 하나 정도를 함께 추천 받아서 그 논문 뒷편에 있는 참고문헌 목록이나 앞 쪽에 연구 배경 부분을 참고하여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글쓰기입니다. 책 읽기와 자료 읽기의 과정이 끝나면 틈틈이 정리해 두었던 메모가 꽤나 많아지게 됩니다. 이 메모를 다시 한 번 훑어보면서 생각의 줄기를 잡아봅니다. 사실 말이 쉽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너무 생각이 엉망진창으로 되어있다면 저는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책의 목차이고 다른 하나는 생각의 층위입니다. 일단 책의 내용 순서에 따라 메모 내용을 재배열합니다. 이후에 나름의 기준을 세워 생각의 층위를 나눕니다. 제 경우에는 책의 구성에 대한 생각, 책의 내용에 대한 생각 두 가지로 크게 나눈 후 책의 성격에 따라서 다시 세분화했습니다. 생각을 배열했다면 그 중에서 수업과 과제의 성격에 부합하면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내용을 하나 고릅니다. 그 후에 그 생각과 다른 메모들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다시 배열합니다.

이제 중심 생각이 생겼으므로 가제를 하나 정하고 뼈대를 구성합니다. 가제라도 정하지 않고 글을 써내려가면 가끔 자신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이 스스로 써져서 서론에 대해 결론이 반론을 제기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제를 정한 후에는 재배열된 메모를 바탕으로 뼈대를 작성합니다. 저는 완결된 문장으로 각 문단의 중심문장을 써놓는 방식으로 뼈대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글을 써내려갈 때 훨씬 수월하게 각 문단을 이어나갈 수 있어 글이 정갈해지기 때문입니다.

뼈대를 완성했다면 글을 다 썼다고 보아도 됩니다. 자신이 했던 생각을 중심문장을 보면서 한 문단 당 3~10문장 정도 더 적어 넣습니다. 이 때 틈틈이 스스로에게 글의 주제와 뼈대를 상기시켜주면 좋습니다. 저는 뼈대를 처음 완성했을 때 인쇄해두고 한 문단을 완성할 때마다 뼈대를 다시 보았습니다. 글을 다 완성한 후에는 맞춤법, 문장 호응 등 문법 부분과 참고문헌, 각주 형식을 반드시 점검합니다. 글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외적인 요소가 좋지 않으면 글의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각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지면의 제약으로 구체적인 예를 제공하여 드리지 못해 모호하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정을 밟아나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글쓰기교실에 방문하여 상담 선생님께 조언을 받거나 우수리포트에 실려 있는 서평을 참고해보십시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좀 더 풍성하면서도 논리적인 서평을 쓸 수 있으실 겁니다.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수상자가 들려주는) 글쓰기 노하우」발간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에서 주최하는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수상자들의 글쓰기 노하우를 엮은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생각, 독서와 표절 등 글쓰기 전반에 대한 조언을 비롯하여, 리포트 준비 과정에서의 팁과 작성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노하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에게 한해 무료로 배부되며, 배부 장소는 글쓰기교실 상담실(61동 312호)입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